

■ 연구원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이 오는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에도 변치 않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함께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연구원은 협약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학술대회와 독립운동영화제를 비롯해 연구원 자체사업으로 문화강좌, 시민강좌, 역사문학기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열쇠 말로 한해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내딛은 발자국에서 더 멀리 뛰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시민과 또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과 가깝지 않은 거리에 자리한 회원과 나눌 수 있는 유형의 콘텐츠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연구원의 콘텐츠를 활용하고 “내가 연구원이고 연구원이 곧 나”라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연구원은 빛나는 청년의 시대를 준비하려 합니다.

2020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2020년 1월 19일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이사장 김병문 드림

스프링필드에서 링컨을 보다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스프링필드(Springfield)에 있는 링컨 대통령 박물관

세인트루이스 시내를 벗어나서 미시시피 강을 건너가면 55번 도로가 나온다. 미국의 도로는 남북은 홀수이고 동서는 짝수로 표시 된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스프링필드는 북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홀수이고 이 55번 도로는 뉴 올리언스에서 시작되며 시카고까지 간다. 세인트루이스 근교에서 마주치는 70번 도로를 지나 북쪽으로 2시간가량 가면 스프링필드에 도착한다.

스프링필드하면 미국 제 16대 대통령 링컨을 떠올리게 된다. 왜냐면 링컨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변호사 사무실을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한 곳도 이곳이며, 그리고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 17년 동안 생활한 사저도 현재 이곳 스프링필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박물관도 이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그와 관련된 유적과 동상들이 눈에 띈다.

링컨은 스프링필드에서 기반을 닦았다. 무일푼의 가난한 소년이었던 그는 울타리 말 독박의 일에 고용되어 막노동을 하였고 구멍가게를 열기도하였다. 그 후에는 미시시피 강을 오르내리는 배의 화부로 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측량기사, 우체국 국장 등 그야말로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일을 하면서 잔뼈가 굵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고 삶의 지침을 책 속에서 찾았다. 링컨은 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도 늘 책을 가까이하는 성실한 청년이었기에 주변 사람들로 부터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의 후원과 사랑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그는 주 의회 선거에 입후보하기에 이르렀지만, 경험도 재력도 학력도 없던 그가 선거전에서 승리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링컨은 좌절하지 않았고 선거 낙선 후 그는 변호사 공부에 몰두하여 불과 2년 만인 1836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링컨은 변호사로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는데, 그에게는 복잡한 법률 논리나 법전의 문구 해석에 매달리지 않고 정의에 대한 감각으로 억압 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은 어느 미망인이 그녀의 죽은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할 유산이 있었는데, 어느 늙은 장군이 교묘하게 서류를 위조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하였다. 더욱이 늙은 장군은 치안판사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였고 당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아야 했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치안판사에 당선 되었다.

그러나 링컨은 단념하지 않고 논쟁의 마지막으로 "장군이여, 나는 당신을 결국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부와 당신 둘 중 누가 옳은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링컨은 소송에서 이겼다. 그는 일반 사건이던 정치적 사건이던, 많은 소송을 변론하면서 치밀함과 상식, 날카로운 안목으로 일약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저명한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정직함과 공정성으로도 이름이 높았던 그는 1834년부터 1840년까지 일리노이 주의 휘그당 의원으로 네 번이나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고 백악관을 향해 한발 한발 전진하였다.



링컨 박물관 내부의 링컨 가족 밀납 인형, 기념촬영 하도록 되어있다.



스프링 필드 시내의 링컨 동상



스프링필드에 있는 링컨과 영부인, 아들의 동상

■ 천년 암자에 오르다

고려와 조선을 연 성수산 상이암, 여섯 번째 이야기 “의병장 이석용 선생 생가”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의병장 이석용 생가 | 민족의 독립을 위해 짧은 생애를 마친 분이 태어난 곳이다.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터다.

상이암을 들르는 사람이면 한번쯤 가 봐야 할 곳이 의병장 이석용 선생의 생가다. 삼봉리의 생가를 찾기 위해서는 성남저수지 아래쪽 작은 삼거리에서 북으로 삼봉산을 향해 들어가야 한다. 작은 고개를 넘어 앞으로 나타나는 삼봉산은 무척 잘생겼다. 기상이 새파랗고 매섭다.

선생은 1878년 이곳 삼봉리에서 태어나 25살 때까지 살았는데, 이후에 이웃 태평리로 옮겨 의병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생가는 최근에 깨끗하게 새로 단장했다. 선생의 본관은 전주이고, 초명은 갑술甲戌이다. 자는 경항敬恒이고, 호는 정재靜齋다. 어려서 김관술金觀述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898년에 남한산성과 축석루, 황산대첩비 등 구국 항전의 기상이 서린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당대의 우국지사이자 지성이었던 송병선宋秉璿·기우만奇宇萬·전우田愚·최익현崔益鉉·곽종석郭鍾錫·허유許愈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선생은 우국지사들과 함께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투쟁에 들어갔다. 위정척사衛正斥邪의 부르짖음 속에서, 개화를 반대하며 반일의식을 더욱 확고하게 다졌다. 그리고 국권을 회복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 내리라 다짐하였다.

1906년 일제가 본격적으로 내정간섭에 나서자, 선생은 임실·장수·진안·순창·남원·함양·곡성·순천 등지를 돌며 동지들을 규합해 항거에 나섰다.

1907년 8월 26일에는 마이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장성에서 일어난 기삼연奇參衍의 의병들과 뭉쳐 영광의 수록산에서 호남창의진湖南倡義陣을 편성했다. 선생은 기삼연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서석구徐錫球·김익중金翼中·전기홍全基泓과 함께 종사從事로 활약하였다. 그 해 9월 호남창의대는 고창의 일본 병참기지를 습격하고 진안의 우편취급소를 파괴한 뒤 용담의 심원사深源寺로 퇴각했다. 이어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경지대에서 활약하던 김동신金東臣세력과 연합했지만, 일본 군경의 내습을 받아 지리산 실상사 백장암으로 패주하였다. 그리고 잠시 의병을 해산한 다음, 광주로 내려가 기우만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그러다가 1908년 1월 대장 기삼연이 순창의 복흥산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이에 선생은 대장 자리를 이어받아 28분의 의사義士들과 함께 남원과 전주 등지에서 일본군에게 많은 타격을 주었다. 이후 전열을 재정비하여 진안읍을 점령했으나, 백마산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참패를 당했다. 그 뒤에도 장수군청을 습격하는 등 항일전을 계속했지만, 결국 일본군의 토벌작전으로 임실에서 패전하고 의병을 해산하였다.

1911년 4월에는 일본으로 밀사를 파견하여 일왕을 주살하려 했으나 실패로 하고 이듬해 겨울 정찬석鄭贊錫·최제학崔濟學{이규진李圭鎭·안자정安子精등 호남 지역 지사들과 밀맹단密盟團을 조직하였는데, 정동석의 배신으로 1913년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 12일 사형선고를 받아, 4월 4일에 순국했다. 37세의 아까운 나이였다.

의병활동 중에 남긴 선생의 진중일기는『정재선생호남창의일록靜齋先生湖南倡義日錄』으로 간행되었다. 1962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성수면의 소충사昭忠祠에서는 선생과 함께 28분의 의사를 기린다.

생가의 안방으로 드는 문틀 위에는 결연한 표정을 지은 선생의 사진 한 장이 걸렸다. 선생은 옥중에서도“나라를 위해 죽는 것만이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부르짖었는데, 사진 속의 형형한 눈빛이 이를 증명해 주는 듯싶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수년 전 상이암에 맨 처음 들렀을때다. 나는‘ 창업創業과 수성守成, 어느 쪽의 공업功業이 더 큰가?’라는 물음을 불현듯 뇌리에 떠올린 바가 있다. 그러나 이곳을 거듭 방문할 때마다 역시 ‘세우기보다는 지키기가 훨씬 어렵다.’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을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 원대한 야망 속에서 고려와 조선이라는‘새 나라’를 창업한 왕건과 이성계의 자취는 분명 말할 수 없이 크다. 하지만 한일합병에 저항하면서 분연히 일어나, 민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의병장 이석용 선생의 거룩하고도 처절한 일생이 여기 생가에서 더욱 또렷하게 각인되는 탓이다. 그리고 민족의 앞날을 위해 평생을 독립가로 보낸 김한태 옹의 외길 인생이 저 휴양림의 편백나무처럼 늘 우뚝하고 푸르지 않은가.

다음 주는 네 분의 성자를 낳은 <오산 사성암> 첫 번째 이야기 “섬진강 가의 오산”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